

**사설**

**직장직능 불교단체에 관심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직장 직능 불교단체들의 활동에 적진호가 들어왔다. 지도법사가 없는 단체도 많고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도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직장직능 불교단체 중에서 110개 단체를 표본으로 시행되었다. 충격적인 것은 응답자의 50% 이상이 회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법회를 개설하여 동참하고 있지만 체계도 없이 단순한 신심에 의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직능 불교회는 종파를 초월해 구성돼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수많은 종단들이 있지만 직장직능 불교회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지도법사 부족은 각 종단의 후원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방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회 참석 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불교계가 시대적 조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포교에 소극적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질대자의 힘에 의지하여 구복과 안심임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종교현상이지만, 더하여 가치 실현과 자아 확립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의 수준이 과거보다 높고,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종교 전파도 수동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불교종단협의회에 이러한 일들을 전담하는 부서나 기구를 만드는 것도 불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불교계의 지도자들도 씨 뿌리지 않고 열매만 따 먹으려는 공파 심리를 하루 빨리 버려야만 한다. 출가자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포교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금강경 절제'의 의의**

23일부터 실상사에서 '금강경절제'가 도입됐다. 전국의 선원이 절제에 들어간 가운데,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의 사찰이자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도량에서 '화두'가 아닌 경전으로 절제를 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심을 넘는 주목을 요한다.

우선 '간경절제'라는 한국불교사상 초유의 시도에 대한 배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의경전, 즉 믿음의 바탕을 이루는 경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생명력과 같은 경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현실은 지금처럼 비금강경적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비금강경적인가. 금강경의 사상이 철저히 '상(相)'을 타파하는 것이어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불교는 선(禪)을 절대화하고 선의 벽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는 말은 금강

경의 핵심이다. 육조 혜능 스님도 이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소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절제 대종의 일차적인 전제다. 금강경의 불교사적 의미는 아주 크다 공문(空門) 즉 교문(敎門)에서 선문(禪門)으로 들어서는 입구이자, 소송에서 대승으로 가는 징검다리 같은 경전이다. 바로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에 투철하지는 것이 금강경 절제의 근본 목적일 것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또한 금강경 절제는 최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간화선과 승가의 수행풍토 쇠신에 대한 교계 안팎에서 비등하고 있는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번 절제에 거는 기대의 일단이 거기 있다.

선종의 발전이 교학(敎學)의 지리멸렬에 있었다는 점을 명심할 때다.

**외국인불교학교 내달 7일 개교**

대구 영남불교대

매주 토, 예법·교리·참선 등 영어로 강의  
기초·고급 과정, 태권도등 문화강좌도

외국인 포교를 위한 불교학교가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설된다.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외국인 이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불교문화를 배울 수 있는 외국인 불교학교를 내달 7일 개원한다.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불교학교는 매주 토요일 3시 30분부터 90분간 4회에 걸쳐 불교기초예법, 참선, 정근을 비롯 한국문화사상, 불교란 무엇인가 등의 강의를 펼친다.

강의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북식호흡을 통한 참선법,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의할 점 등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불교다도 시연 및 정식 불자로서의 입문을 알리는 수계 의식도 가진다.

또한 강좌를 수료한 외국인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영남불교대학에서 진행 중인 사찰순례, 불교다

도, 템플스테이 등 각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영남불교대학은 불교학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기초과정 뿐만 아니라 불교경전을 공부하는 고급과정과 함께 태권도, 한글교실,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외국인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월드컵 기간 중 실시되었던 템플스테이가 전부였다. 때문에 불교를 알고 싶어도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 이번 외국인 불교학교 개설은 대구에 거주하는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포교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미군장교 빌 튜더(31대위)씨는 "사찰을 방문하려다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단순히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관광 이상의 경험은 할 수 없었다"며 "영남불

교대에서 외국인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한데 대해 기쁘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은 첫 강좌에 약 20여명의 외국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 2,4주 토요일 2시 외국인 대상 사찰개방 및 관람안내를 실시하고, 주한 미국인 대사·방송인 AFKN에도 광고를 낼 계획이다.

영남불교대학장 우학스님은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필연적이라는 생각에 우선 정을 감안, 이번 외국인 불교학교 개설은 대구에 거주하는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포교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미군장교 빌 튜더(31대위)씨는 "사찰을 방문하려다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 단순히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관광 이상의 경험은 할 수 없었다"며 "영남불

**"법적용 공정...종단 화합에 최선"**

연대부 조계종 제3대 호계원장 월서스님



"부족한 것이 많은데 다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 만큼 종단 안정과 화합에 최우선을 둔 중책을 떠날 것입니다."

16일 조계종 제 155회 중앙정기 총회에서 제3대 호계원장에 선출된 월서스님(사진)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종단의 기강과 안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서스님은 2대 호계원장에 이어 연임하게 됐다.

일반 사회법으로 볼 때 대법원에 해당하는 호계원의 위상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을 인식한 듯 월서스님은 "호계원은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계율이 해이해지는 풍토가 바로 잡혀야만 호계원이나 종단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승속을 막론하고 지계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다. 지난 4년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반자들 중 사제도 있고 도반들도 있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는 한 치의 사심도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으로 일해왔다"며 "이런 원칙이 종단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호계원장은 조계종 사법기관의 수장인 만큼 어떤 행위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월서스님은 "그러나 호계원 법도 부분적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더 연구해서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종도들이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면 호계원이 필요없게 된다"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모든 종도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새해예산 162억 확정**

지혜·혜정·덕진 스님 원로의원 추천

제155회 중앙총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이 162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16일 열린 제155회 정기총회에서 일반회계 162억1천5백만원, 특별회계 236억3천2백만원 등 내년도 세입세

출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원이 편성했던 164억4천여만원에서 2억2천7백여만원이 삭감됐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총무원 수계산립 세입 예산 1억7백만원 △교육원 행사교육 세입 1억2천만원 △총무원 기획실 중무프로그램

법규위원장 대운스님

중앙선관위원장 학현스님

중앙교육원장 수암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최근 법규위원장에 대운스님(前 신촌 봉원사 주지), 중앙선관위원장에 학현스님(前 교무부장), 중앙교육원장에 수암스님(前 제주 종무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중앙교육원 부원장에 성오스

**태고종 종무기관 일부 인사 단행**



님(안성 성은사, 포교연구실장에 해준스님(서울 법륜사), 연구위원장에 법련스님(서울 혜승사, 연구

위원에 주명철 교수(동국대), 김월단 교임(서울 덕화사) 등이 임명됐다. 김철우 기자

"깨끗한 선거" 호소문 발표

불교등 7대종교 지도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은 20일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21세기 민주회합과 번영을 위해 이번 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각 당 후보들은

정당당당한 경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종교인들 스스로 깨끗한 선거 실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본사사령	
임연태	총 편집부장 겸 뉴미디어부장
양은숙	총 편집국 편집부
2002년 11월 25일부	

**'현대' 만평**

김영민



한국불교, "Great!"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rianews.com](http://www.buddharianews.com)  
www.buddhania.com  
www.mahamall.co.kr  
www.yoslamun.com

편지: (02)732-4162 FAX (02)737-0638  
광고: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경희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불
국내 최다 진신사리 친견
● 죽

모시는 말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제는 한번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진솔(眞率)하게 참회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종족, 사상, 이념, 종교, 문화, 환경,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지구촌 전인류가 세계화, 아니 한 가족이 되어 국경, 여권, VISA가 없이 오대양, 육대주를 마음대로 순유(巡遊) 할수있는 융화세계(龍華世界)가 한강이 기적(奇蹟)을 이루고 월드컵 경기때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소리치던 붉은 악마로 변한 우리 국민의 그 무서운 잠재력이 다시 분출되어 화연, 혈연, 지연을 초탈(超脫)한 마음이 뻗고 융화세계의 발상지가 되고 역사와 후손에게 떳떳한 조상임을 보여줄 참다운 진아(眞我)를 찾는데 평생의 결정체인 진신사리(眞身舍利)를 친견(親見)하고 소원성취(所願成就) 이루시기를 합장하여 비읍니다.

불기 2002년 11월 동명사 사문 합장

사리함

진신사리

사리함

● 진신사리 친견 : 불기 2546년 11월 30일 부터~

● 동 참 문 의 : 02-442-0962  
02-442-9358

※ 사문(沙門)과 인류(人類)를 위하여 대작 불사(大作佛事)를 함께 하실 신심이 돈독하고 능력이 있으신 회장님을 찾습니다.

# 동명사

서울 강동구 암사 1동 460-15호 상원빌딩 5층

찾아오시는 길 ↓

암사역 2번 출구  
암사역 1번 출구 (사리암 500m 후회)  
전호사거리  
신사거리  
고덕주유소  
대림 APT  
동명사 상원빌딩 5층  
암사역에서 동명사 700m  
도보로 5분거리